

# 첫 번역 이후 20여년만의 완역본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상·하편



번역을 의뢰받은 문학평론가 최인자씨는 영국 문화원 직원의 도움을 얻어 영국왕립도서관에서 마침내 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권이 가지는 문학사적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만사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하권을 통해 이야기의 완결을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빈슨의 또다른 모습과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출판사 측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 책의 상권은 70년대 초 문학평론가 김병익씨의 번역으로 출간됐다가 절판되고, 84년에 삼중당 문고본으로 재간행된 바 있어 「로빈슨 크루소」 제3판의 모습으로 다시 선보이게 된 것이라고 그는 '제3판 역자 후기'에서 밝힌다. 주인공이 상편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파괴"하고 "신과 직접 대화하려는 존재의 탈사회적 욕구의 알레고리"를 보여 주고 있다면, 하권에서는 크루소가 18세기 유럽의 문체적 개인이자 전형으로 그려지면서 당시 서구인들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영토확장과 무역을 통한 경제적 착취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살상 등의 잔인함에 대해서는 웅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그 변명은 주인공 자신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전화된다. 작품 곳곳에 중국 등 동양에 대한 우월감을 표명하지만 서구인의 편견을 폭로하는 것임을 느끼게 한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부르주아 세계관을 비판하며 이 작품을 분석의 한 토대로 삼았다고 한다.

문학세계사/A5신/366, 306면/각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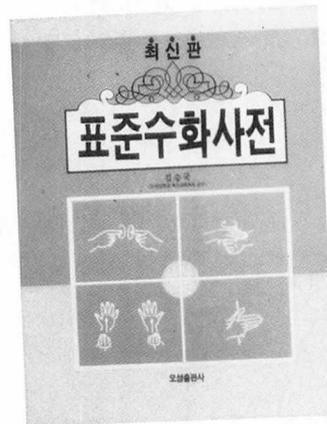
"이러한 이야기들과 그후 10년 동안 내 새로운 모험 중에 겪었던 여러가지 놀랄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이 인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로빈슨 크루소」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러나 그 후속편인 「로빈슨 크루소의 또 다른 모험」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완역되어 화제를 낳고 있다. 문학세계사에서 나온 「로빈슨 크루소」(상·하)가 그것이다.

출판사측이 밝힌, 이 완역본이 나오게 된 계기와 과정은 「로빈슨 크루소」의 '별편'에 해당할 만큼 또하나의 모험담이다. 문학세계사의 한 직원이 백과사전을 보던 중 우연히 「로빈슨 크루소」의 하권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점가를 훑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적이 없음을 확인케 된 것. 탐문과

# 전문가들 공동작업한 수화의 '국어대사전'

김승국 엮음 「표준수화사전」



수화의 기호와 지문자를 병용하는 원칙(한글식 표준 수화 규정)을 정하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표준수화사전」이 출간됐다.

지난 91년 발간된 「한글식 표준 수화」가 사용빈도가 높은 일부 기호만을 수록한 데 비해, 이 사전은 수화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사정한 기호 모두를 포함하며 지난 83년에 출판된 「수화 사전」에 수록된 596개의 기호와 지문자 및 지숫자, 「표준 수화 사전」(김옥 학술문화재단 편, 1982)에 수록되어 있는 조사 및 어미의 기호까지를 포괄하여 명실공히 '국어대사전'에 비견되는 '수화대사전'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농인 사이에, 그리고 수화를 배워 사용하는 일반인과 농인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케 되고, 농인과 연관된 각급 학교와 단체에서 표준수화를 가르침으로써 언어생활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

하며, 수화가 필요 이상으로 변화되고 분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김승국 교수를 비롯, 7명의 농인과 22명의 일반인 등 29명의 수화전문가. 연구진들은 국어표준어 정의인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에 의거, "수화를 사용하는 특수학교 교사와 대표적인 농인단체의 직원들의 두루 쓰는 현대 수화 기호"를 표준수화기호로 정하고 수화의 기호와 지문자를 병용하는 원칙을 세워 8차에 걸친 조사와 수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사정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편자인 김승국교수는 "이를 완벽한 표준수화라 일컫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 사전을 계기로 수화의 기호와 문장의 표현방법에 관한 발전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머리말을 적어놓았다.

김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화의 어휘는 약 6, 7천 단어 정도이며, 대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자연수화'라고 한다. 특히 농부모를 가진 농이는 별로 없으므로 집에서 임의의 몸짓으로 의사 소통을 하게 되고, 농인들이 농아학교에 다녀도 서로 다른 몸짓을 수렴해 그들끼리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냄으로써 수화에 다기다종의 '사투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로인해 이 사전은 농인들에게 통일된 수화로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김교수는 자부한다.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가나다순으로 배열됐고, 약 2500여개의 삽화로써 이해를 돕는다.

오성출판사/B5/650면/20000원

## 전문가는 디저트로, 초보자는 부페처럼 읽어야 할 책!

똑같은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맛이 달라지듯, 아무리 좋은 원고도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책 '맛'이 달라진다. 깔끔한 편집자, 센스 있는 디자이너, 안목 있는 기획자가 꼭 챙겨야 할 디자인 워크북!

커트 헝크스, 데이브 에드워즈, 래리 벨리스턴/홍현숙 옮김  
신국판/별색인쇄/192면/값5,300원

- 디자인의 전모가 한눈에 쏙쏙!
- 신세대 편집자가 꼭 챙겨야 할 책!

자미오 ML 디자인여행



## 세계 미스터리 걸작선 02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잘 차렸다.

코난 도일 · 아가사 크리스티 · 스티븐 킹 · 체스터튼 · 엘리러 퀸... 정통 추리에서 서스펜스, 하드보일드, 정신분석, 심층심리, 사회파에 이르기까지, 미스터리 거장들의 백미가 한자리에 모인 세계 단편 추리소설의 진수성찬.  
정영록 · 정태원 편역/각권5,500원

전화 738-0931~2/팩스 720-3469  
서울·중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 1-306호



# 한국 영재교육 선구자의 유고집

정연태의 「영재아에게 도움을」



故 정연태박사(前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의 유고집인 「영재아에게 도움을」에는 교육의 평등주의·민주주의가 체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 교육현실 속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헌신했던 그의 정열과 의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교육법 총칙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에서 학습자 모두가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교육법의 정신의 근간이며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교육에서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영재아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은 물론, 그들의 소질이 성공적으로 계발되면 민족과 인류의 장래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는 그들을 위한 교육체제와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동참할 것을 이 책은 요구한다.

美법률에 의하면 영재아란 “전문 인사에 의

해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앞으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고 평가되는 자”라는 것. 미국에서는 영재아의 범주의 어린이를 3~5%로 보고, 영국에서는 2%로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자가 영재아에게 관심을 집중한 이유는 ‘편애’ 차원이 아닌 민족애와 인류애의 차원이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영재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것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즉 국제적으로 생존경쟁이 가일층 치열해져가고 또한 인류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육성하여 짐을 떠맡겨야 한다는 것.

“과학교육의 큰 별”이었던 정연태씨는, 서울대 이성목교수의 ‘추모글’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대 중등 과학교육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며 美과학고등학교 시절 후 우리나라에 과학고등학교 설치에 많이 관여했고, 말년에는 ‘한국영재아교육협회’를 결성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의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선구자이다. 저자는 영재교육에 관한 일체의 거론을 터부시하는 문교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다 병을 얻었다. 그의 유작시 마지막 구절은 “아희야, 아희야 가져오너라 身病부터 고치고저”인바, 임종 직전까지 “인간자원의 廢物化”를 안타까워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의 3男들인 정은교·정세교·정승교씨가 엮은 이 책은 영재아에 대한 연구논문, 「영재아협회 회보」에 기고한 글모음, 세계영재아회의에 발표된 영문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까지 / A5신 / 320면 / 7000원

# 만화로 풀어쓴 話法표준화 해설서

국립국어연구원 「만화로 익히는 우리말의 예절」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생색내기용 일과성 행사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화법 표준화 사업’은 결과물을 확산시키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호평을 듣고 있다. 「우리말의 예절」(국립국어연구원 편, 조선일보사 간)에 이어 「만화로 익히는 우리말의 예절」이 발간된 것.

지난 90년 문화체육부(당시 문화부)가 언어 질서의 확립과 언어문화의 향상을 위해 민간 주도에 의한 화법 표준화 사업을 계획, 조선일보사와 함께 27개 주제에 대한 모범안을 발표함으로써 접목된 이 사업은 국민 여론수렴을 거친 후 지난 92년 국어심의회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해설서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된 바 있었다. 그리고 「우리말의 예절」을 거쳐 이 책에 나오기까지 했수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만화」시리즈로 어린이에게 더 많이 알

려진 작가 김수한씨가 「우리말의 예절」을 토대로 글을 쓰고, 「서울 돈키호테」 등을 그린 홍광표씨가 그림을 맡은 이 책은 우리가 날마다 쓰면서도 제대로 쓰는지 알쏭달쏭한 데다가 잘못쓰면 망신당하기 십상인 각종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 화법의 원리와 실례를 만화를 통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들테면, 신입사원 선발시험에서 면접시험관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바람에 낙방했다는 김모씨, “아버님, 식사하세요”라고 했다가 식당종업원이라고 꾸중만 잔뜩 들었다는 주부 이모씨, “부장님, 넥타이가 이쁘습니다”라고 모처럼 ‘아버성 발언’을 했다가 되레 놀림만 당했다는 윤모씨 등의 풍부한 사례를 들어가며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절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까지도 출간의의를 지니는 책이다.

「만화로 익히는 우리말의 예절」은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직장, 사회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일상생활에서의 인사말’ ‘특정한 때의 인사말’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중 ‘남편에 대하여’ 항목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말이 20여 가지나 있음을 보여준다. 씨, 자기, 당신, 이봐요, 아저씨, 오빠, 선생님, 너, 형, 임자, 영감, 여보, ○○아빠 등등. 여러 호칭에 대해 사계의 권위자들의 사상한 논평으로 그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한 뒤 ‘여보’가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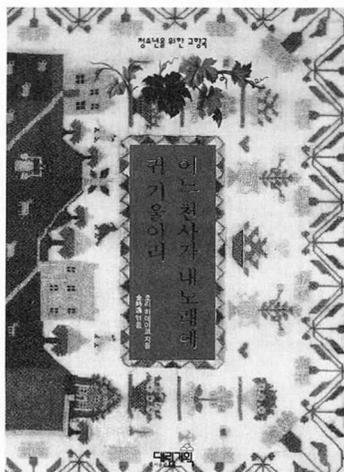
고려원미디어 / A5신 / 314면 / 4800원

지·성·인·을·위·한·교·향·곡

신간

##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리

호리 히데이코지음 · 김시일 엮음



잔인한 계절 4월에  
찬란한 5월의 봄을 위하여  
메마른 폐로 한껏 큰 숨을 들이쉬어 본다

우리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선택한 나의 길, 나의 삶을 예찬하고  
젊은 날의 사랑을 노래한다  
인생이라는 향기나는 우물에서  
뼈 속까지 시원히 적셔줄 한 동이의 맑은 물

최선을 다하는 시간만을 위하여  
나의 심장은 뛰고 있고 나의 꿈은 열려 있으니  
어느 천사가 내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을지로 3가 286  
Tel : (02)268-4902  
FAX : (02)277-6946